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3/19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민 의견은?

최근 충남도 교육감이 비리 문제로 구속되면서 시/도 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선 교육감의 비리 발생은 과도한 선거 비용 때문이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식이 부족해 직선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2~14일(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감 인지도, 직무 평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3월 12~14일(3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직접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
5. 표본오차: $\pm 3.2\%$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7%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시/도 교육감 이름을 아는가?: '모르겠다' 67% - 20대 86%가 몰라 -
- 시/도 교육감 성향을 아는가?(진보 vs. 보수): '모르겠다' 59%, '정인지' 31%
- 시/도 교육감은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58%,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16%
-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나?: '공감' 50%, '공감하지 않는다' 32%

시/도 교육감 이름을 아는가?: ‘모르겠다’ 67% - 20 대 86%가 몰라 -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 ‘알고 있다’ 33%, ‘모르겠다’ 67%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시도 교육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감을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대에서 86%로 많았고 30대는 72%에 이르렀다. 취학 자녀(초/중/고/대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27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55%)가 시도 교육감 이름을 몰랐고 아는 사람은 45%였다.

▶ 시/도 교육감 인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알고 있다	모르겠다
전체		934	33	67
성별	남성	463	30	70
	여성	471	36	64
연령대별	19 - 29세	170	14	86
	30대	189	28	72
	40대	204	42	58
	50대	178	40	60
	60대 이상	193	37	63
취학 자녀여부	취학 자녀 있다	275	45	55
	없다	659	28	72

질문) 귀하께서는 □□시/도 교육감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 이름이 다른 경우 ‘모른다’에 체크

시/도 교육감 성향을 아는가?(진보 vs. 보수): ‘모르겠다’ 59%, ‘정인지’ 31%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가 교육감의 성향을 알고 선택할 것이란 전제 하에 실시된다.

현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5개 시도의 교육감은 진보, 이외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연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교육감의 성향을 알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 교육감 성향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묻은 결과 59%가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현 교육감 성향 정인지자는 31%, 오인지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성향 정인지 비율은 40대(36%)에서 가장 높았으며,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의 39%, 취학 자녀가 없는 사람의 28%가 정인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 시/도 교육감 성향 인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정인지 ^{주)}	오인지	모르겠다
전체		934	31	10	59
성별	남성	463	34	11	55
	여성	471	28	8	63
연령대별	19 - 29세	170	28	8	64
	30대	189	31	11	58
	40대	204	<u>36</u>	7	57
	50대	178	32	11	57
	60대 이상	193	27	11	62
취학 자녀여부	취학 자녀 있다	275	<u>39</u>	11	<u>51</u>
	없다	659	28	9	<u>63</u>

질문) 귀하께서 보시기에 □□시/도 교육감은 진보성향입니까, 보수 성향입니까?

주)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 진보 성향일 때 정인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보수 성향일 때 정인지로 분류

시/도 교육감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58%,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16%

시/도 교육감의 이름과 성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58%로 절반 이상이였다.

또한, 현 교육감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307명)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7%였다.

▶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전체		934	22	16	4	58
성별	남성	463	25	16	3	56
	여성	471	19	17	4	60
연령대별	19 - 29세	170	24	16	2	58
	30대	189	16	16	5	63
	40대	204	24	21	2	53
	50대	178	28	12	7	53
	60대 이상	193	19	16	3	62
취학 자녀여부	취학 자녀 있다	275	28	17	4	51
	없다	659	20	16	4	61
교육감 인지별	이름을 알고 있다	307	32	24	6	37
	모른다	627	17	13	3	68

질문) 현재 □□시/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모르겠다’일 때)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나?: ‘공감’ 50%, ‘공감하지 않는다’ 32%

최근 교육감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으로 직선제의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비리 문제로 인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공감 여부를 묻은 결과 ‘공감한다’가 50%, ‘공감하지 않는다’가 32%로 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공감은 남성(54%)이 여성(45%)보다 많고
고연령일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저연령일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감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전체		934	50	32	19
성별	남성	463	54	33	13
	여성	471	45	30	25
연령대별	19 - 29세	170	45	39	16
	30대	189	49	39	12
	40대	204	50	34	16
	50대	178	52	29	19
	60대 이상	193	52	18	30
취학 자녀여부	취학 자녀 있다	275	52	34	14
	없다	659	49	30	21

질문) 최근 시/도 교육감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본 조사 결과 교육감 이름을 모르겠다: 67%, 교육감 성향을 모르겠다: 59%,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모르겠다: 58%로 나타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 즉 “잘 모르는 후보들 중 한 명을
억지로 뽑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